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5.03.14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채권/부동산 02-3779-3184, e.shin@sangsanginib.com

Analyst 황준호 | 시황/ETF 02-3779-3186, jh.hwang@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퀀트/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상상인증권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주식 5

2. 채권 10

3. 외환 12

4. 원자재 14

5. 부동산 16

6. ETF 18

7. 디지털 자산 21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금리 동결 이후 나올 트럼프의 반응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

위험 회피 성향이 두드러진 한 주 흐름을 확인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필두로 한 미국 우선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북미를 넘어 관세 전쟁의 전선은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 주체라는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주류 관세 카드를 꺼냈다. 종잡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학습 효과는 분명 개선됐다. 다만, 학습효과의 향상이 투심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 하고 있다. 미 증시 중심으로 낙폭 만회는 커녕 확대가 나타나는 중이다. 기술주의 대표주자 M7의 가격 하락은 투심의 악화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의 압도적 지위 훼손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 중이다. 선진국 대비 신흥 증시의 낙폭이 오히려 제한적일만큼 투심은 위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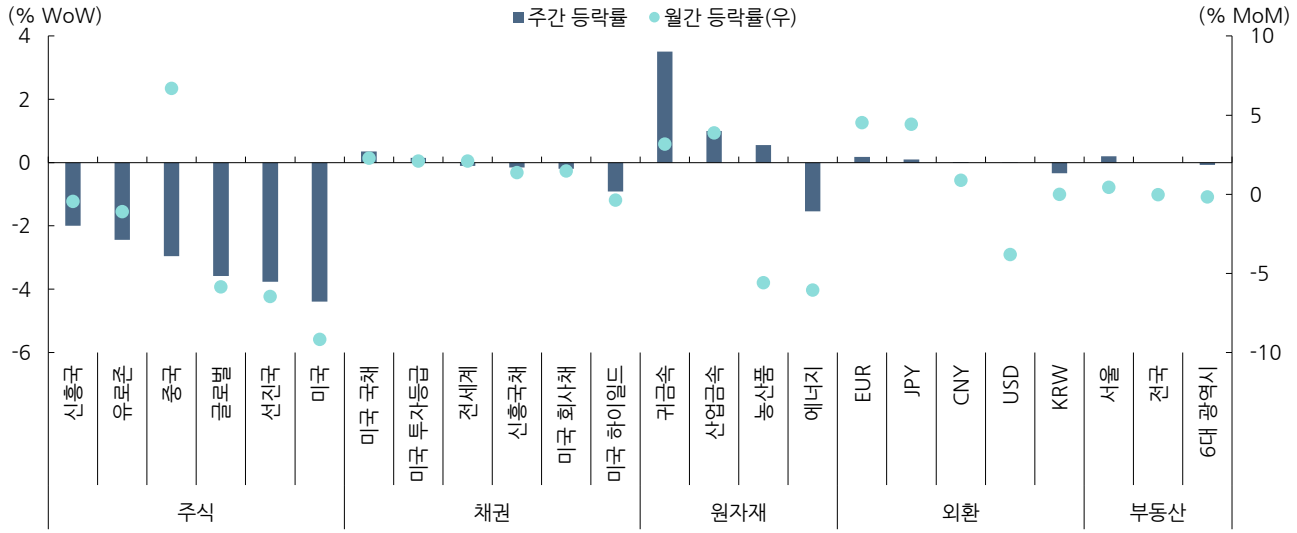
물가 둔화 확인되나 미 FOMC의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반전의 계기는 차주 있을 FOMC에서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금주 확인된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는 쇼크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안도를 할 수 있었다. 다만, 트럼플레이션의 본격화는 추후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고용 시장지표에 대한 민감도 역시 다소 경감되었기에 추후 변화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퇴색되었다. 시장 가격에 미치는 변동 요인으로 작용이 미미했던만큼 차주 있을 연준의 금리 동결은 확실시된다. 점도표에서 금년의 금리 인하 횟수를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현재의 물가 및 경제지표로는 아직 다소 미미할 수 있다.

견조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추세 반전의 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뉴스에 달려

차주에도 미국의 수출입물가와 산업활동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나 연준 정책 경로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정책에 있어서 정중동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는 3월 금리 동결이 발표될 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향후 연준의 독립적인 정책 결정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다각도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칠 미 경제 파급력을 확인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들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옳은 길을 가는 과정 중에서의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감내가 필요한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준발 시장 친화적 태도를 강요할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한 시장의 피로도는 높아질 수 있다. 투심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비교적 견조하겠으나, 위험자산으로의 이동은 반전의 계기가 확인될 때 재개될 수 있겠다. 미 달러화는 혼조세를 기록 중인데, 차주의 일본중앙은행 금정위에서의 금리 인상 경로 시그널이 확실시된다면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원화자산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3월이라는 시점이 다소 이르기에 기대감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겠다.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뉴스에 따른 출렁임을 확인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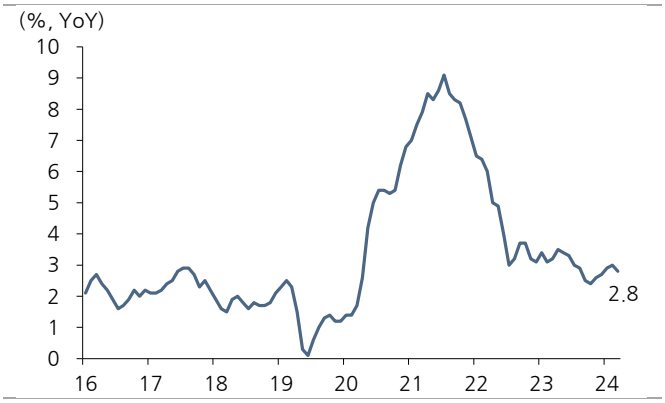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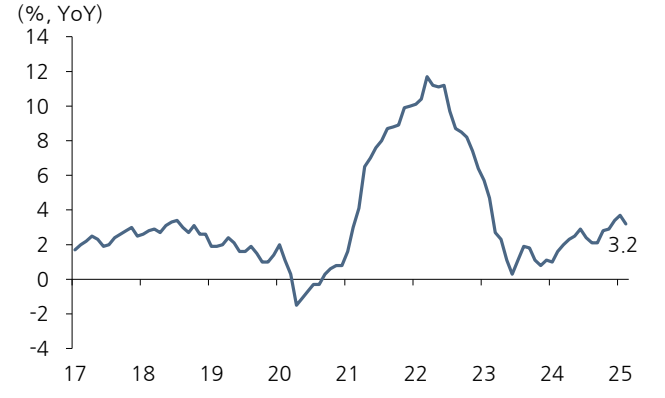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 전망치(2.9%)하회, 전월대비 0.2% 상승, 전망치(0.3%) 하회
- 1월 급등했던 교통서비스 가격은 자동차 보험료 등 연초 서비스 가격의 인상 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여객 수요 둔화 등으로 항공료가 크게 감소하며 하락 전환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3.2%)를 하회, 86%를 기여한 계란 가격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로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속
-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 완화에도 경계감 지속

그림 2.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게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하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던 시장에 안도감
- 연준이 선호하는 PCE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일부 품목은 상승세를 지속

  PPI 둔화에도 불구, 관세 분쟁 격화로 인해 미 증시는 하락

그림 3. 일본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2월 발표한 속보치(연율 환산 2.8%, 전기 대비 0.7% 증가)보다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
- 2024년 연간 GDP는 속보치와 동일한 전년 대비 0.1% 증가세를 유지하며 4년 연속 플러스 성장
- BOJ가 19일 금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GDP 수치는 완만한 성장 속 일부 취약한 부분을 반영
- 차후 BOJ의 금리 인상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것

1. 주식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전반적으로 하락한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는 중국 디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에 상승

KOSPI는 전주대비 +0.40% 상승한 2,573.64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0.67% 하락한 722.80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하방 압력으로 상존하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한 이후 반등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동반 반등세가 시현된 것에 힘입어 반도체 대형주들의 비중이 높은 KOSPI 역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선물옵션만기일에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미국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는 KOSPI의 주간 상승률을 제한했다. 그리고 3월 중국 양회라는 이벤트 기반 모멘텀이 소진된 가운데, 중국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국 내수 회복 수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시현한 점은 KOSDAQ이 전주대비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비철/목재(+16.5%), 에너지(+3.2%), 보험(+2.7%)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조선(-5.6%), 미디어/엔터(-4.6%), 운송(-4.0%) 등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미국 증시는 물가 둔화 확인에도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에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하락

S&P 500 지수는 전주대비 -4.31% 하락한 5,521.52pt를 기록하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주대비 -4.65% 하락한 40,813.57pt를 기록하였다. NASDAQ은 전주대비 -4.91% 하락한 17,303.01pt를 기록하였다. 금주 미국 증시는 2월 미국 CPI, PPI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주대비 하락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2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안도감을 제공했으나, 이후 유럽산 주류에 대한 200%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 증시에 하방 압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30일 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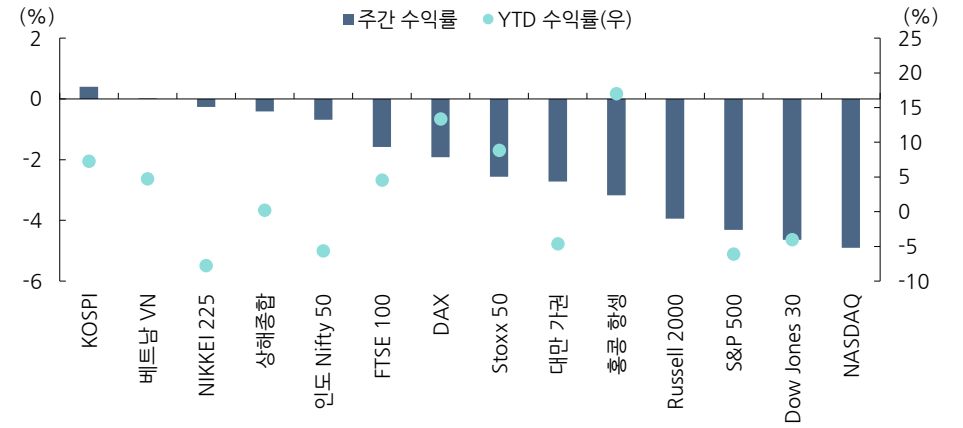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유틸리티(+0.0%)를 제외한 IT H/W(-10.7%), 소비자서비스(-7.8%), 자동차(-7.6%), 운송(-7.4%) 등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중국 증시는 미-중간 갈등 심화 및 디플레 우려에 하락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0.41% 하락한 3,358.73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 지수는 전주대비 -3.17% 하락한 23,462.65pt를 기록하였다. 금주 중국 증시는 그동안 동반 급등하면서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어온 AI 테마 관련 종목들이 조정장을 시현한 가운데,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전면 관세가 발효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들은 기존의 20% 기본 관세에 더해 총 4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는 소식은 관련 업종에 악재로 인식되었다. 여기에 9일(일) 발표된 2월 중국 CPI는 전년대비 -0.7% 하락하고 2월 중국 PPI는 전년대비 -2.2%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도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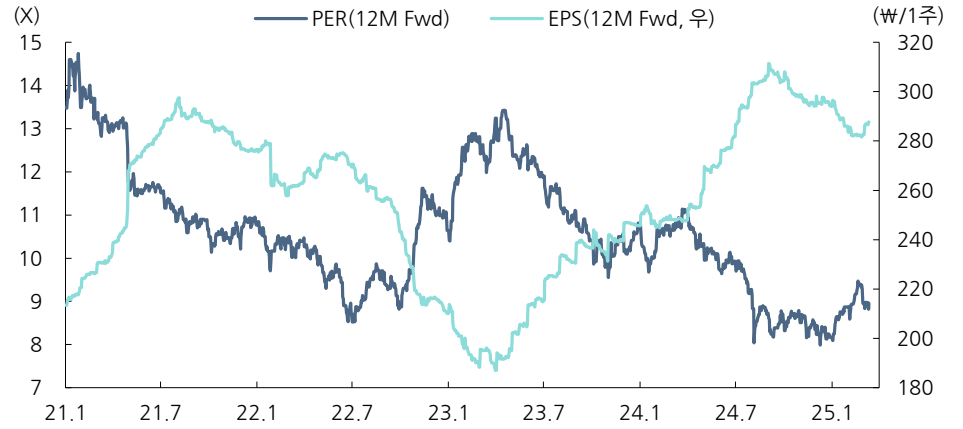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에너지(+3.4%), 소재(+1.7%), 유틸리티(+1.2%)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정보기술(-4.0%), 커뮤니케이션(-2.2%), 경기소비재(-1.6%) 등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그림 1.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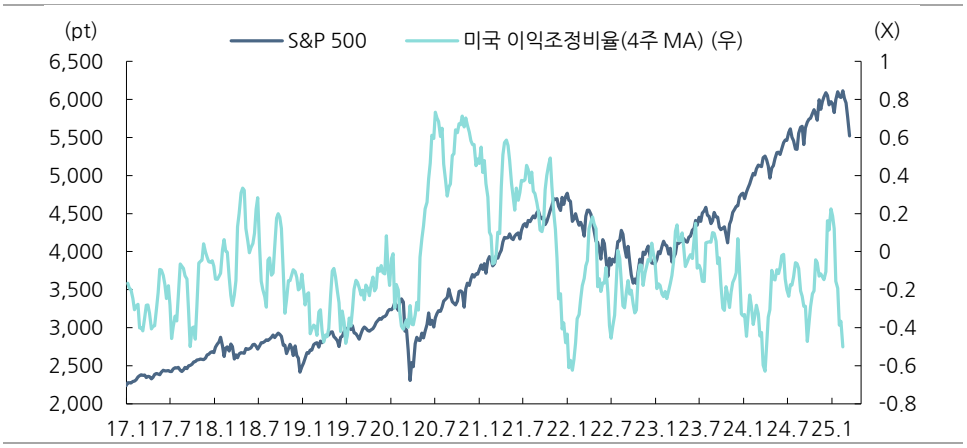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KOSPI 12M Fwd PER, EPS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계속되는 관세 리스크, 다만 반등의 기회는 존재

차주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상승세 지속 전망

•Positive: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한국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또한 캐나다 및 유럽 내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에 힘입어 방위 산업, 건설, 기계 등의 섹터에 대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점도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Negative: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시행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무역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중국 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다소 위축된 점은 증시의 상단을 제한할 것이다.

차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시현할 것이다.

차주 미국 증시는 물가 둔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반등 기대

•Positive: 2월 미국 CPI,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초 우려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조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 주식 ETF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반등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Negative: 비록 2월 미국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여전히 음식료 관련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4/2 상호관세 단행을 예고한 동시에 유럽과 인도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경고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증시에 악재로 상존할 것이다. 또한 미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점도 차주 미국 증시의 상단을 제한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한 미국 테크주들에 대한 자금이 중국 테크주로 일부 이동한 점도 상단 제한 전망을 지지한다;

차주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제한적인 반등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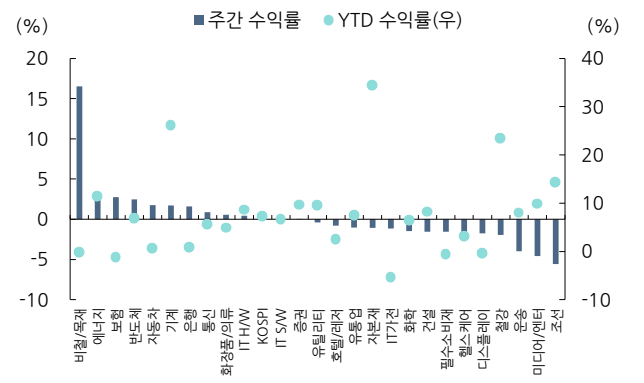
차주 중국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Positive: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신호는 기술 지배력이 확인된 기술주들이 이끌어온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역시 낮아진 대미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은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

•Negative: 11일(화) 종료된 중국의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 당국은 정부 부채를 늘려 내수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리창 총리의 기자회견이 부재하면서 정부의 내수 부양 의지를 확인할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는 점은 현재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미-중간 무역전쟁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조정 심리는 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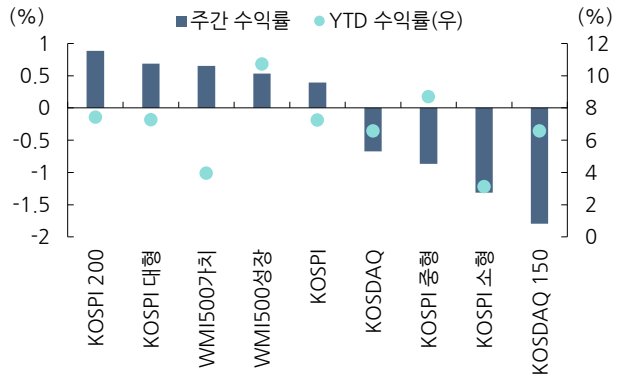
차주 중국 증시는 기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되나,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락세를 시현할 것이다.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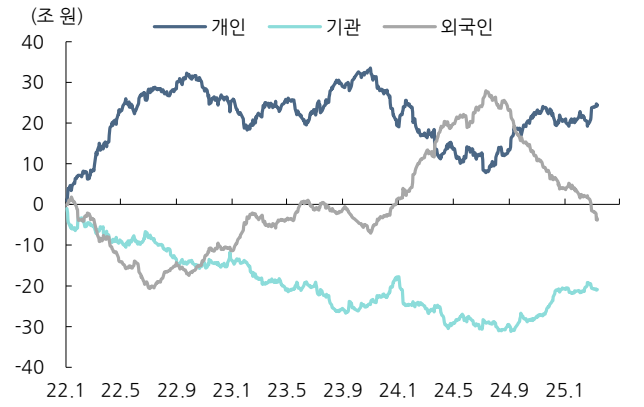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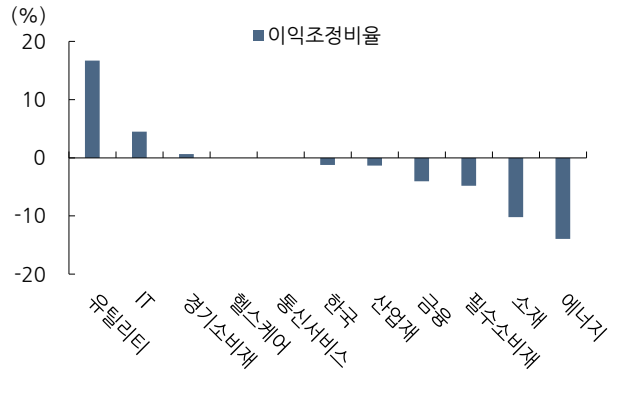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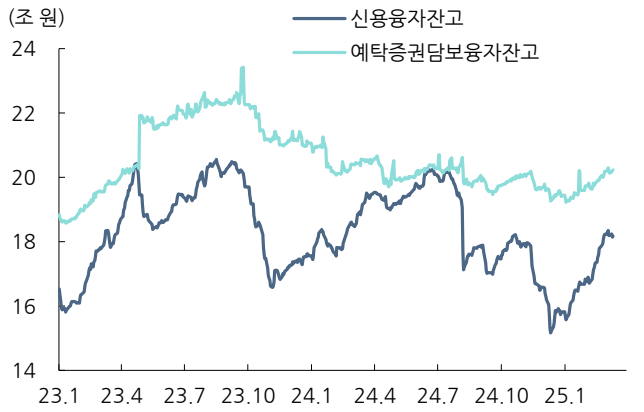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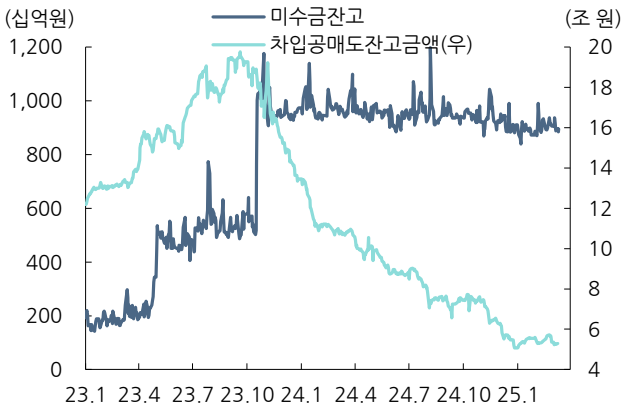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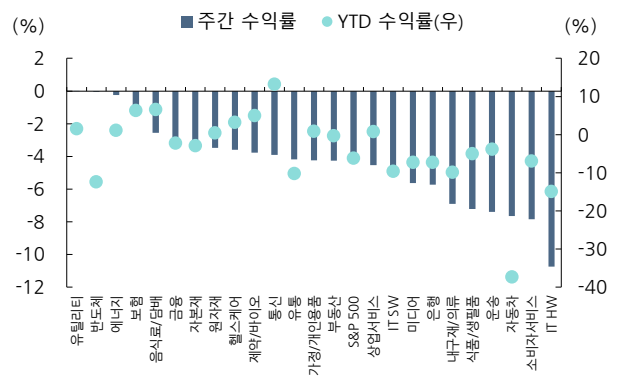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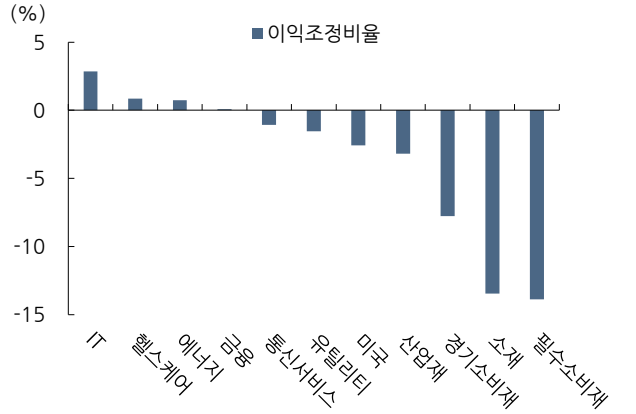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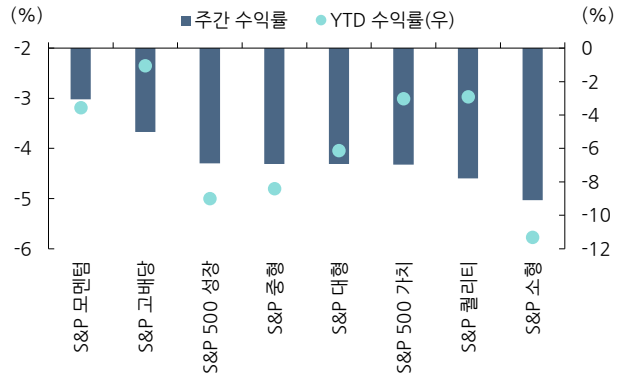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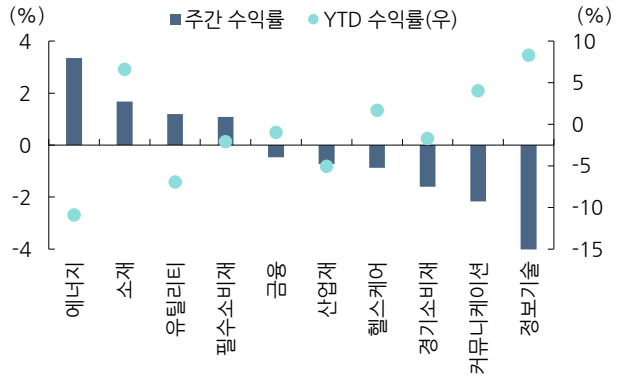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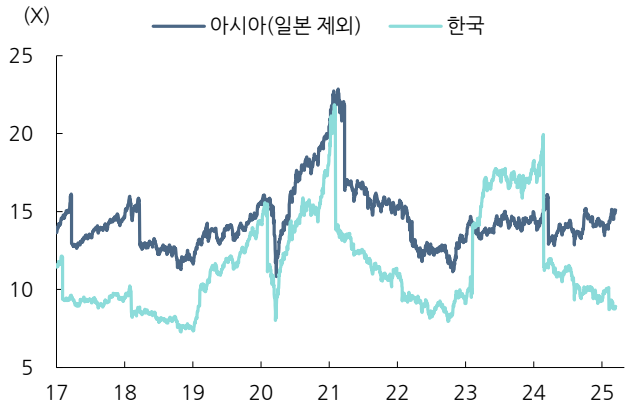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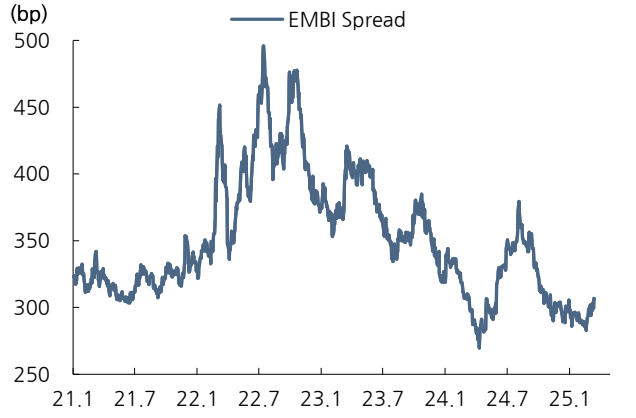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채권

경기 침체 여부와 물가 주시하며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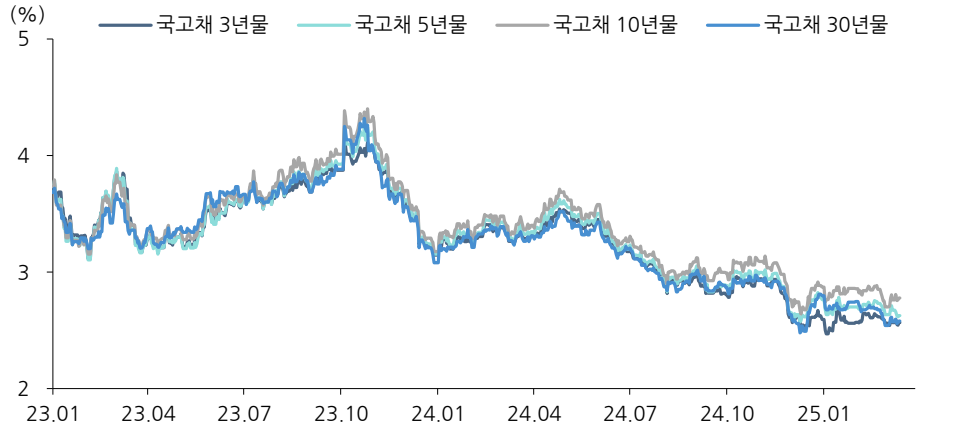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
경기 둔화 우려 변화 주시하며 보합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보합세를 시현했다. 주 초반부 KDI의 3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인해 약세장을 시현했다. 주 중반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증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국고채 시장은 미국채 시장에 연동되어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후반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된 점이 국고채 약세장을 야기했다. 다만 이후 국채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금리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미 국채 시장
국채 발행 가능성 주시하며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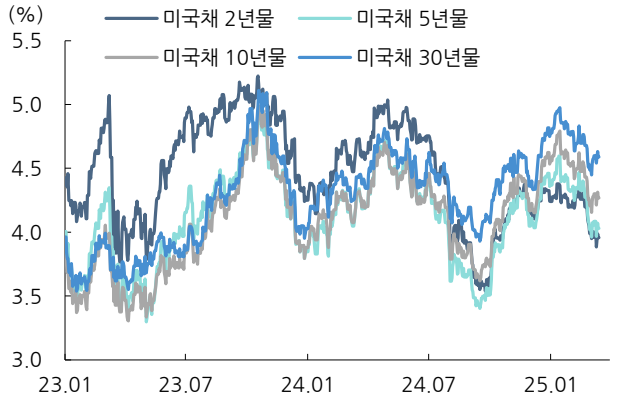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보합세를 시현했다. 주 초반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고수 발언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 독일 국채 금리 하락도 일부 영향을 주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중반부 독일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독일 국채금리 상승 및 우-러 전쟁 휴전 가능성에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채권시장은 약세장을 시현했다. 주 후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세 시행 및 미국 2월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가능성 확대에 미국채 금리는 상승하며 채권시장은 약세장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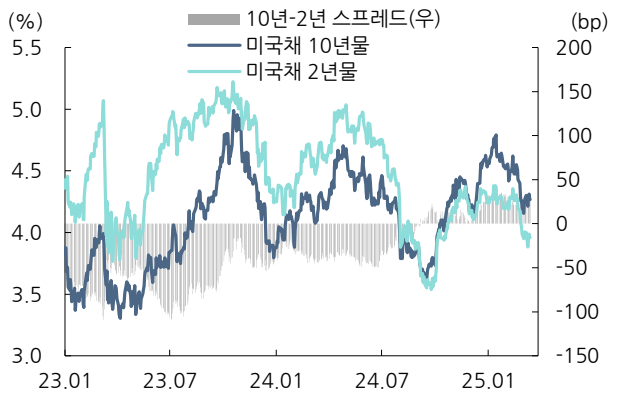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확실한 FOMC 결과와 대조적인 미국 경제지표 & 국내 정치사법적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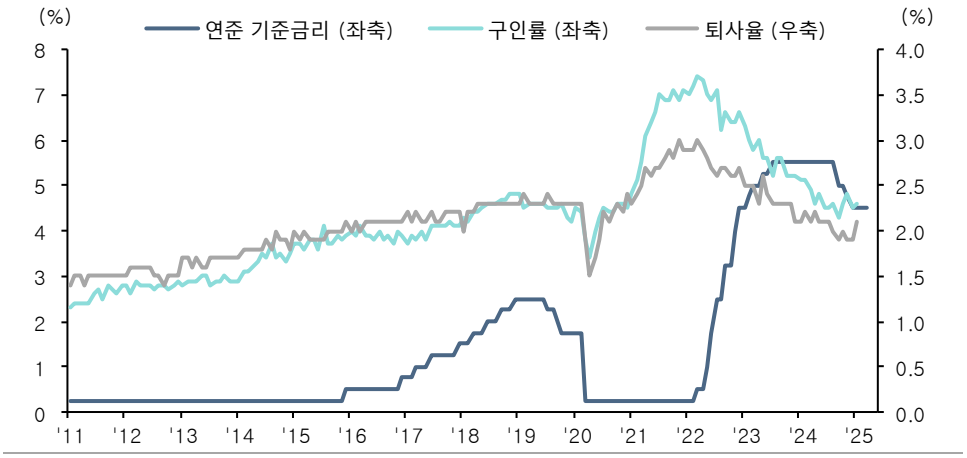
차주 국내 채권시장 강보합 예상
FOMC발 악재 가능성 제한적

차주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세를 예상한다. FOMC가 예정되어 있다. 기준금리 4.25~4.50%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파월 의장 발언과 함께 발표될 점도표에서의 연준 정책 경로가 관건이다. 시장 악재로 다가올 매파적 성향의 표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금리 하단 테스트 동력을 자극할 것은 미 국채 금리, 외인 국채선물 순매수세 및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부상 여부 등으로 요약되겠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확인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강조하기에 금리 하락 재료의 우위 전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미국 고용 및 물가
무난한 결과 확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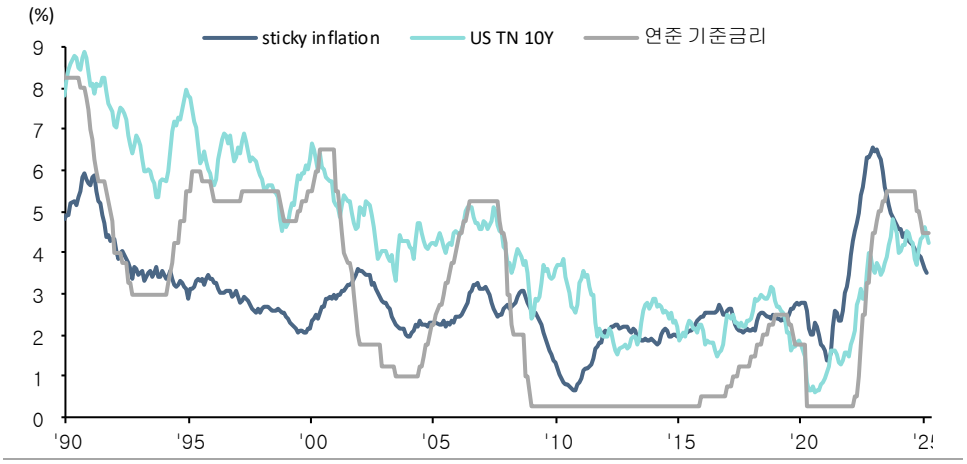
금주에 확인된 1월 JOLTS 보고서는 전월 대비 774만건을 기록하며 전월비 23.2만명 증가했다. 구인률과 퇴사율 모두 소폭 반등했다.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일부 완화됐다. CPI는 전월비 0.2% 상승했으나, 트럼플레이션 우려가 온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영향력은 제약됐다. 그럼에도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매월 0.1%p 내외로 축소되는 점은 시장 친화적이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는 이어진다. 한편, 국내의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선고 시, 변동성 자극은 수반될 수 밖에 없겠다.

그림 4. 연준 기준금리와 JOLTS보고서의 구인률 및 퇴사율



자료: FRB,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 국채 금리와 스티키 인플레이션율



자료: FRB,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외환

미 달러 약세 지속

미 달러화, 103pt까지 하락

미 달러화는 103pt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 약세장을 시현하였다. 금주에도 유로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달러인덱스의 하락을 주도 중이다. 주 초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으나, 독일 재정지출 확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에 강해진 유로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장을 시현하였다. 금주 CPI가 당사 예상대로 2.8% 상승을 기록,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였으나, 시장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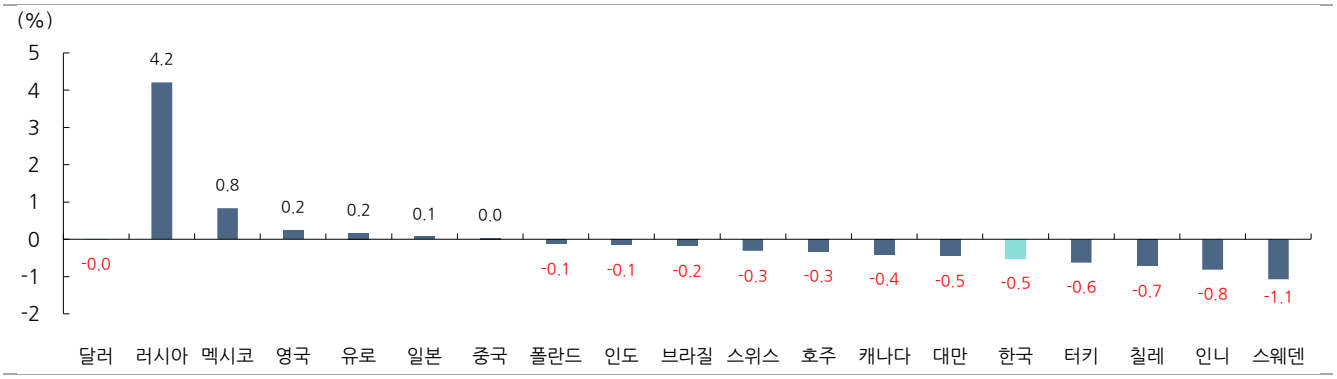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1,450원대 재진입

달러 원 환율은 1,450원 전후 레벨에서 전주 대비 상승하였다. 주 초반 원화는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에 연동되어 1,450원대 중반까지 상방압력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강해졌다. 다만 주 후반 러우 전쟁 30일 휴전에 미국이 합의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원화 약세 폭을 축소하였다.

엔화 안전자산 선호 해소되며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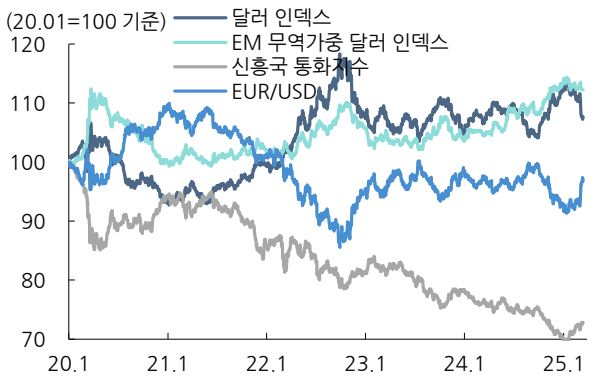
달러 엔 환율은 147엔대 까지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 강세장을 시현하였다. 경기 침체 등 불안상황에서 상승하는 엔화의 특성으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강세장을 시현하였다. 다만 주 후반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일부 해소되면서 엔화 강세 폭은 되돌려졌다.

그림 1. 주간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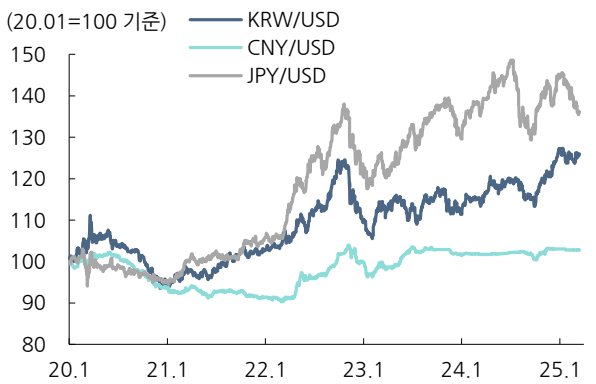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글로벌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아시아 통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당사 예상에 부합했던 CPI, 중장기 물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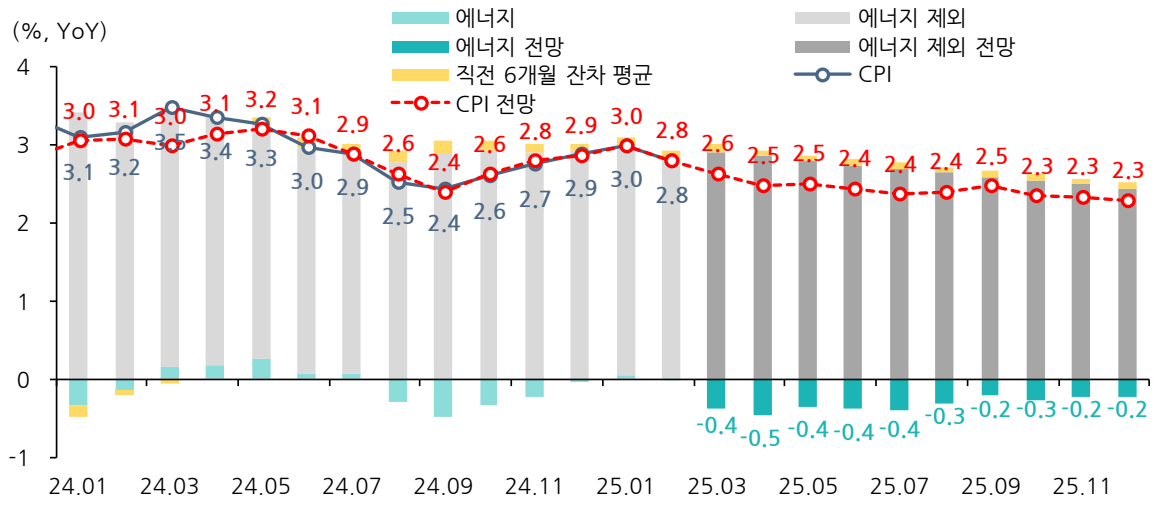
미 헤드라인 CPI 2.8% 예상치 부합 향후 에너지 물가

2월 미 CPI가 예상치 2.9%를 하회한 2.8%로 발표되어 스태그플레이션 부담감을 한층 덜어내 주었다. 이는 당사가 제시했던 미 헤드라인 CPI 경로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금번 물가에서는 에너지 제외 물가의 진정 추세가 확인되었는데 일시적인지, 지속적일지에 따라 향후 물가 경로의 방향성을 판가름 하겠다. 3월 유가가 현수준($68/bbl)을 유지할 시 물가에 마이너스 기여도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반기 내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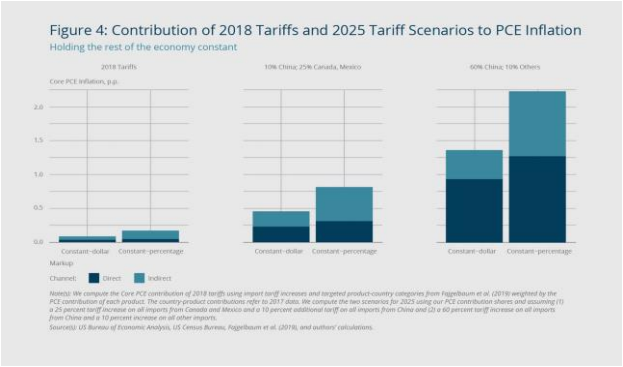
중요한 점은 2분기부터 관세 시행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이 작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관세 정책 시행 시점 및 강도가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보스턴 연준의 관세 시나리오 3가지를 활용, 관세 영향력에 따른 물가 수준을 예측하였다. 시나리오 ①: 2018년 관세 수준(Core PCE 상승 기여도, +0.08 ~ +0.16%p), 시나리오 ②: 캐나다 & 멕시코 25%, 중국 10% 관세(+0.45 ~ +0.81%p), 시나리오 ③: 중국 60%, 나머지 지역 10% 관세(+1.36 ~ +2.23%p). 이를 당사 CPI 전망에 단순 합산 시 대중국 관세 60%를 설정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2%대 물가 안착이 예상된다. 추후 협상 가능성도 잔존해 있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림 4. 2025년 미국 헤드라인 CPI 경로 추정(2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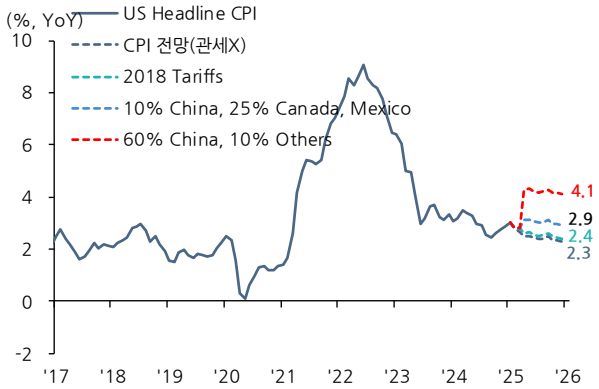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 에너지 가격 전망은 당사 유가 전망(25년 평균 $67/bbl. 완만한 하락)반영, 에너지 외 물가는 직전 3개월 추세가 이어짐을 가정. 직전 6개월 평균 잔차로 보정

그림 5. 보스턴 연은 관세 시나리오별 Core PCE 물가 영향력



자료: Boston Fed

그림 6. 관세 시나리오를 고려한 Headline CPI 추정



자료: Boston Fed,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 보스턴 연은의 시나리오별 Core PCE 물가 영향력(%p) 평균을 당사 CPI 전망에 단순 합산했기에 과소평가 가능성 상존

4. 원자재

경기 침체와 관세를 반영

국제유가, OPEC 증산 발표에 하락

WTI 근월물 가격은 60달러 전후에서 주간 기준 강보합장세를 시현하였다. 주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수요 우려가 부각, WTI 가격은 약세로 출발하였다.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진정되고,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수요 우려가 해소되어 강세로 전환되었다. 미국 물가 상승폭 둔화 소식 또한 유가에는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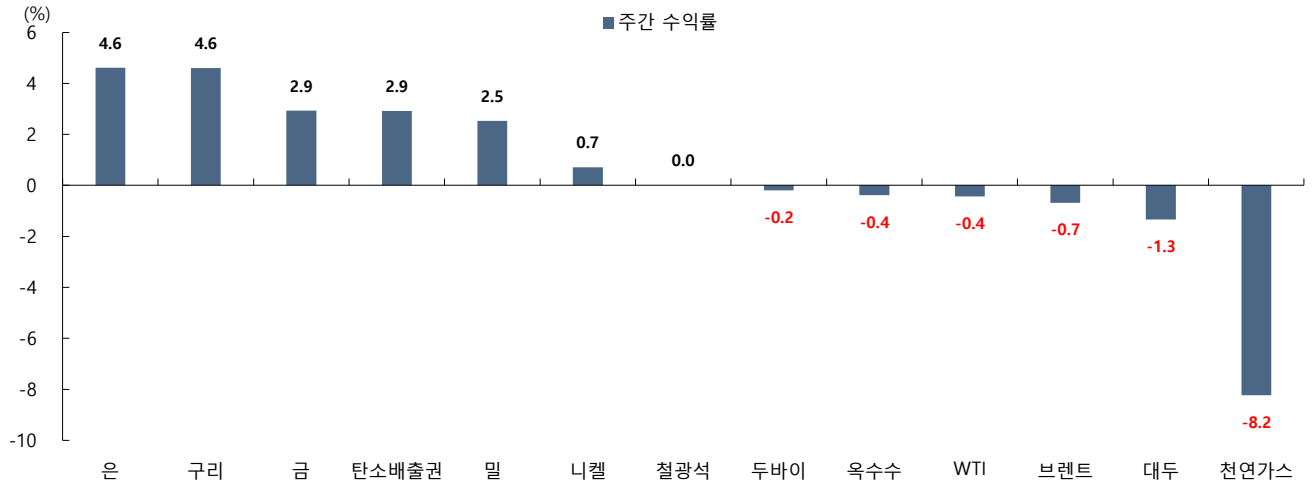
금 가격, 달러 약세 기조에 강세

금 가격은 전주대비 반등세를 시현하였다. 주 초반부터 경기 침체, 관세 불확실성 등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되면서 금 가격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미국 2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안정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산업금속, 관세 가능성에 강세

산업금속 가격은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주 초반부 경기 둔화 우려에 수요 의구심이 작용하면서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으나, 주 후반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력을 소화하면서 강세장을 시현하였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여타 산업 금속의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산업금속 가격이 연일 상승 랠리를 시현 중에 있다.

그림 1. 주요 원자재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북미 시추기가 진짜 늘까?

Rig 수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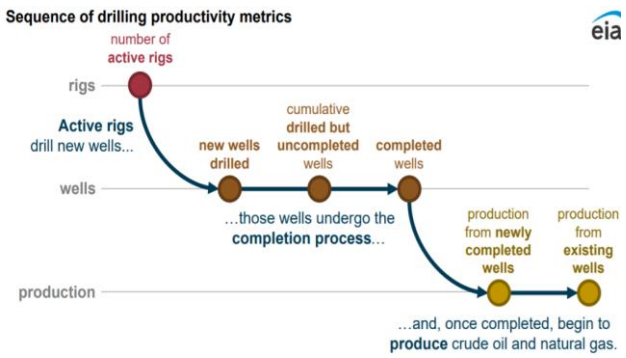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바와 달리 북미 에너지 투자의 바로미터인 시추기 수(Rig Count)는 480개 내외에서 요지부동이다. 과거 동일 유가 수준과 비교해도 시추기의 절대적인 수는 작다. 정책의 시차가 존재하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아직까지 부재할 수 있다. 다만 충분히 향후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주된 이유는 재고의 감소에 있다.

미완결유정(DUC)는 시추(Drilling)는 완료하였으나, 완결공정을 거치지 않은 유정을 의미하며 미국 원유 생산자들에게는 완결공정만 거치면 즉각적으로 생산 가능한 재고같은 개념이다. 미국 내 총 DUC는 25년 초 기준 5,258개로 추산된다. 중요한 부분은 미국 내 신규 유정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67%) 지역인 퍼미안의 DUC가 900개(2014년 이후 최저치) 내외로 빠르게 소진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4,118개를 피크로 약 -78% 감소한 상황이다. 즉, 향후 원유 생산량 증가를 위한 재고(DUC) 활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신규 시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가 레벨 부담에도 시추 규제 해제 상황을 활용한 재고(DUC) 확충 목적의 시추기(Rig) 증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Drill, Baby, Drill!

그림 2. 북미 원유 시추기 수 및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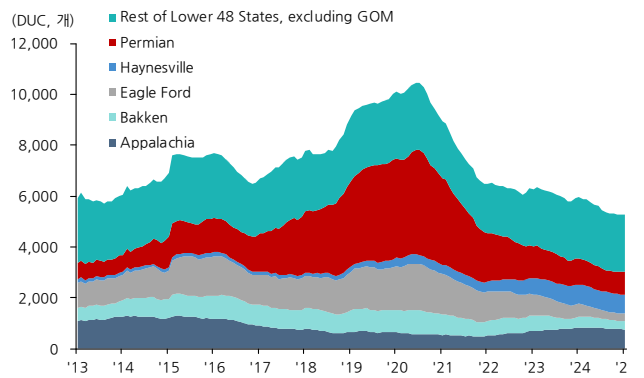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원유 생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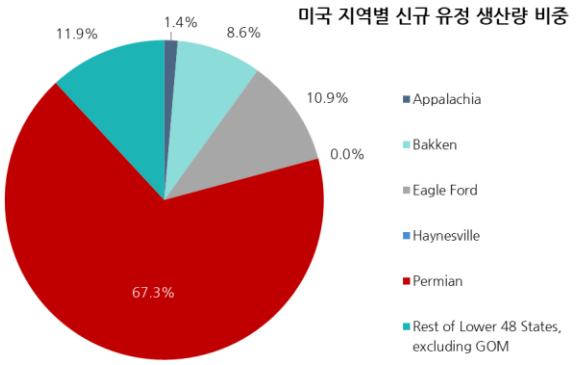
자료: EIA

그림 4. 미완결유정(DUC) 추이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국 지역별 신규 유정의 생산량 비중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5. 부동산

서울, 경기와 나머지 지역간의 방향성 괴리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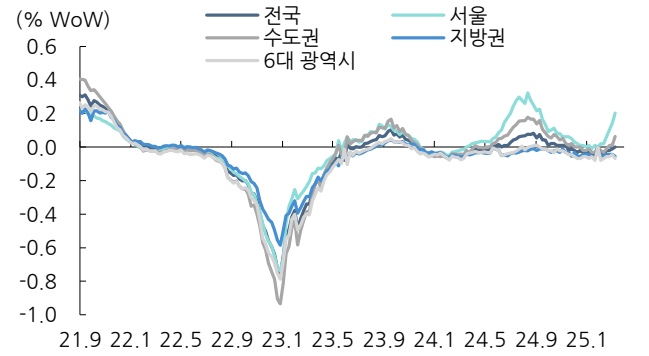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가격 상승세 부각

3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대비 0.00%를 기록했다. 이전 -0.01% 대비 보합 전환했다. 전세 가격지수는 금주 +0.01%를 기록하면서 다시 이전 0.01% 대비 상승률이 유지되었다. 서울 지역 내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 계약들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야기하였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 이러한 상승세를 지지했다. 다만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속되는 재건축, 선호 단지들의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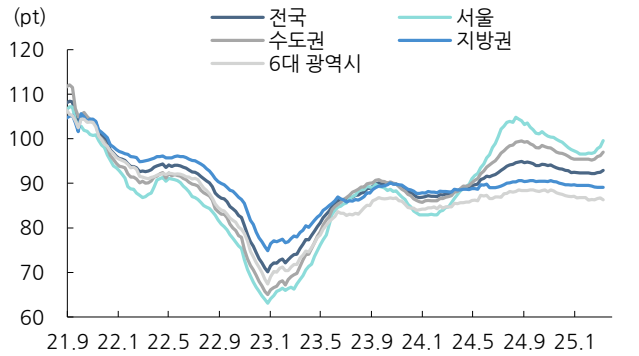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61개를 기록하며 전주 54개 지역 수 대비 증가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14%로 신규 공급 및 적체된 매물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강북(+0.07%)의 경우 성동(+0.29%), 용산(+0.23%), 마포(+0.21%) 등의 주요 단지 내 매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었다. 강남(+0.31%)은 송파(+0.71%), 강남(+0.69%), 서초(+0.62%) 내 주요 단지 혹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주대비 상승폭이 추가 확대되었다. 인천(-0.05%)의 경우 연수(-0.12%), 계양(-0.08%), 미추홀(-0.06%) 등의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부각되었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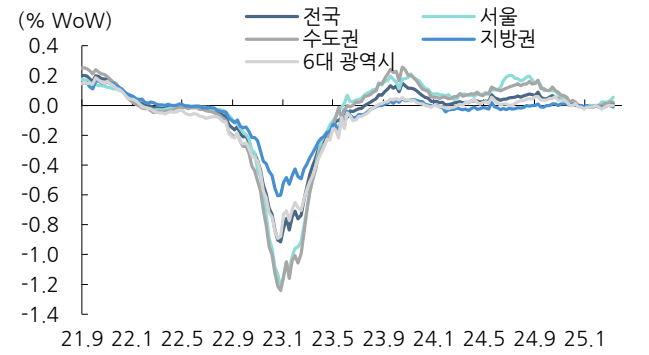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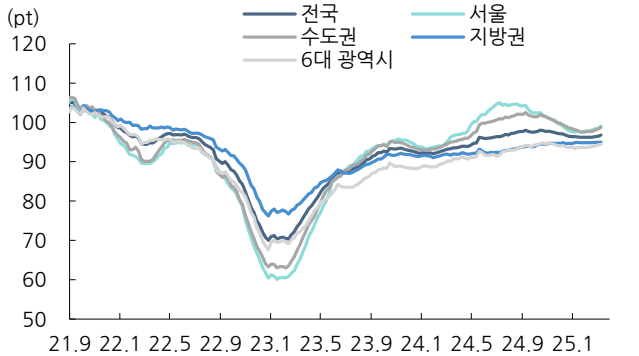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월 서울 아파트 6천건 내외로 급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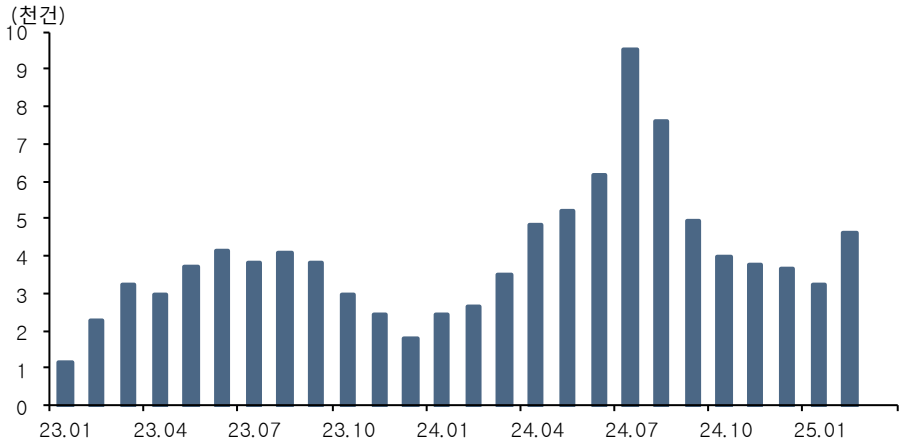
송파, 과천 및 강남의 기록적인 주간 매매 상승세

서울 아파트의 뜨거운 상승세가 지표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원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0.20% 상승했다. 전세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05%를 기록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는 여전히 약세장을 시현 중이나,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0.00%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세는 대구경북 및 대전충청 지역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나 대다수 지역에서 강보합세를 시현 중이다. 특정 지역의 미분양 및 입주 물량 집중에 의한 전세가 하락을 제외하고는 매매와 임대차 모두 수급, 매크로 환경 및 대기 매수세 유입의 영향으로 반등 전환 중임을 확인한 3월 2주차였다.

월 거래 건수 급증에 의한 호가 상승 그리고 이를 뛰어 넘는 매수세 유입 국면

특히, 서울의 열기가 특징적이다. 송파구는 0.72% 주간 상승이라는 기록적 상승을 나타냈고, 경기 과천 역시 송파와 근접한 +0.71%를 기록했다. 가장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구 역시 0.69%를 나타냈다. 토허제 해제 이후 매매의 도미노적 발생으로 급격한 호가 상승 -> 추가 매수세 유입의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3천건대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월 들어 급반등 중이다. 2월 실거래 반영이 아직 70%대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3/13일 현재 4,600건 이상 반영됐다. 현 추세로는 약 6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한다. '24년 2~3Q의 월간 평균 거래건수와 유사해지겠다. 그 속도가 전년 대비 빨라졌고, 입주물량 감소세는 2분기 이후 두드러질 것이기에 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분간 정부 당국은 구두 주의에 그칠 것이기에 동 흐름은 확산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 건수



자료: 서울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6. ETF

계속되는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에 주목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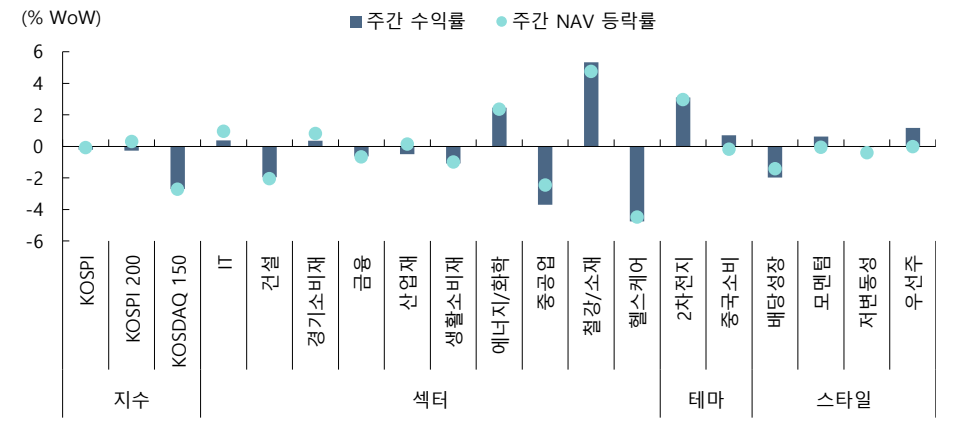
금주 ETF 시장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금주 국내 ETF 시장은 한국의 DRAM 수출입 단가가 반등하고 주요 낸드 메모리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로 인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증대되자 반도체 관련 ETF들의 상승세가 부각되었다. 이에 SOL 반도체후공정(+6.63%), SOL 반도체전공정(+5.75%), SOL AI반도체소부장(+5.67%) 등이 전주대비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반면 TIGER 조선TOP10(-7.39%), SOL 조선TOP3플러스(-7.21%), HANARO Fn조선해운(-6.09%) 등 조선 섹터 관련 ETF들은 그동안의 상승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전주대비 하락하였다.

차주 ETF 시장은 방산 테마와 단기채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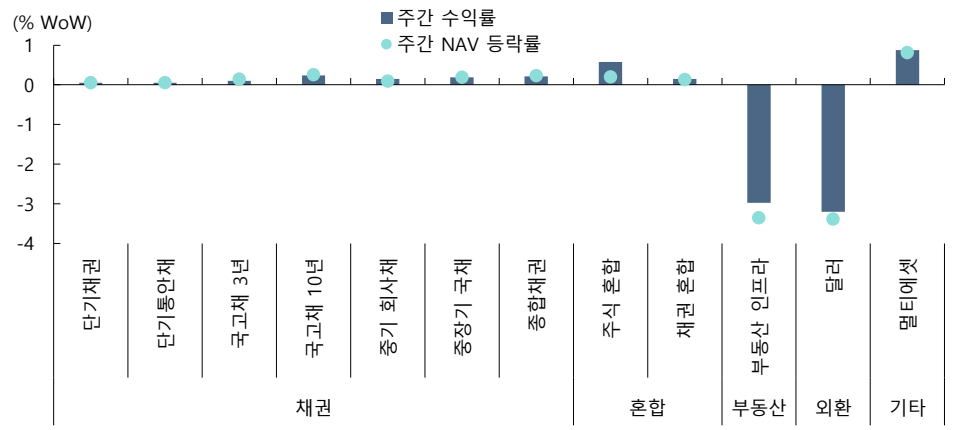
차주 국내 ETF 시장은 캐나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군비 증강 트렌드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는 PLUS K방산(449450), SOL K방산(490480) 등이 전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주가 부양이 기대되는 TIGER 지주회사(307520), KODEX 코리아밸류업(495850) 등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미국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서 미 연준의 25년 금리 인하 횟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329750) 등 미국 단기채 ETF의 상승세가 역시 기대된다.

그림 1.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주간 수익률, NAV 변화율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내 상장 FICC ETF 주간 수익률, NAV 변화율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1. 미국 상장 대표 주식 ETF 주간 수익률

구분	항목(티커)	AUM (십억 달러)	수익률(%)				유입액(백만 달러)			
			1W	1M	3M	YTD	1W	1M	3M	YTD
대표 지수	S&P 500(SPY)	600.61	-3.72	-9.56	-8.43	-5.91	7,492.1	20,740.2	-4,530.0	4,655.8
	다우 30(DIA)	36.78	-4.02	-8.46	-6.52	-3.75	107.9	213.8	77.0	377.5
	NASDAQ(QQQ)	301.06	-4.07	-12.61	-11.58	-8.39	-395.2	1,613.0	7,616.2	3,727.4
	러셀 1000(IWB)	36.69	-3.81	-10.03	-8.95	-6.16	-45.3	153.9	-97.2	-1,593.4
사이즈	대형주(MGK)	22.87	-4.94	-13.75	-13.02	-10.48	-148.7	-194.3	311.0	100.6
	중형주(IJH)	88.75	-3.64	-10.53	-12.47	-8.18	49.5	105.0	1,116.6	424.1
	소형주(IWM)	10.96	-3.67	-10.88	-13.89	-9.08	-7.6	-175.9	-825.9	-777.1
스타일	성장(SPYG)	30.99	-3.91	-13.10	-11.28	-8.93	-901.7	-1,035.2	-554.2	-584.8
	가치(SPYV)	24.62	-3.55	-5.72	-5.65	-2.66	66.6	272.9	858.7	511.1
	우선(PFFD)	2.31	-0.97	-1.67	-1.88	0.01	7.1	10.9	-16.5	-8.7
	배당성장(SCHD)	68.35	-2.78	-2.01	-2.99	-0.11	290.8	1,189.1	4,140.6	2,528.9
섹터	테크(XLK)	65.75	-3.60	-13.17	-12.99	-10.69	-31.3	-925.5	-185.9	-512.2
	필수소비재(XLF)	49.68	-3.97	-8.28	-3.87	-1.88	216.6	-408.7	2,210.8	2,166.2
	유틸리티(XLU)	17.35	1.95	-2.61	0.46	2.21	-150.8	108.1	486.7	652.8
	원자재(XLB)	5.34	-3.09	-5.87	-4.39	0.87	12.2	-104.0	-457.1	-160.7
	커뮤니케이션(XLC)	20.59	-4.83	-9.39	-5.80	-2.03	-302.8	-136.0	326.1	539.2
	산업재(XLI)	20.04	-2.95	-6.61	-5.82	-2.26	-219.1	-522.5	-312.7	-337.4
	경기소비재(XLY)	20.59	-6.53	-15.19	-18.06	-14.15	45.7	-287.5	222.4	357.3
	에너지(XLE)	31.74	1.42	-2.82	-1.47	1.77	86.9	-333.8	-2,641.2	-2,656.8
	헬스케어(XLV)	38.17	-3.64	-1.75	2.47	4.55	135.4	552.1	-897.0	-90.2
	금융(XLF)	49.68	-3.97	-8.28	-3.87	-1.88	216.6	-408.7	2,210.8	2,166.2
	부동산(VNQ)	34.64	-3.78	-3.97	-4.90	-0.76	-98.7	-307.2	130.1	-78.9
지역	전세계(VT)	41.07	-2.96	-6.71	-4.97	-2.04	94.2	99.3	106.3	-519.9
	선진국(VEA)	145.01	-1.56	-0.52	4.02	7.11	4.5	18.8	2,898.4	1,094.6
	신흥국(VWO)	82.04	-1.09	-0.72	-0.20	2.79	2.7	473.2	1,308.8	492.2
	미국(VTI)	440.41	-3.84	-10.17	-9.30	-6.43	322.4	2,223.9	6,685.8	7,310.8
	중국(MCHI)	6.30	-1.34	7.56	17.84	19.01	0.0	332.2	-54.5	-54.5
테마	AI(CHAT)	0.26	-2.84	-15.82	-13.92	-10.41	0.0	2.6	53.4	59.8
	클라우드(SKYY)	3.24	-6.46	-20.89	-17.52	-13.14	-16.0	-120.1	27.9	15.8
	로봇(BOTZ)	2.57	-3.91	-12.40	-9.90	-6.89	-5.8	7.6	114.2	107.7
	2 차전지(BATT)	0.06	0.23	-4.00	-4.69	-1.82	0.0	0.0	-4.1	-4.1
	태양광(TAN)	0.77	-0.19	-4.95	-8.05	-3.11	0.0	0.1	-38.8	-4.0
	방위산업(ITA)	6.14	-0.33	-3.95	0.67	2.46	-14.8	-221.5	-240.1	-225.6
	반도체(SOXX)	11.32	-1.48	-12.45	-12.49	-9.46	28.1	-389.3	-1,614.0	-1,381.4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미국 상장 대표 FICC ETF 주간 수익률

자산	항목(티커)	AUM (십억 달러)	수익률(%)				유입액(백만 달러)			
			1W	1M	3M	YTD	1W	1M	3M	YTD
채권	채권통합(AGG)	124.70	0.01	1.48	1.55	2.28	403.7	2,003.4	3,802.9	3,317.7
	국채(GOVT)	29.04	0.20	1.71	1.79	0.13	-963.0	-694.9	-705.2	-680.7
	지방채(SCMB)	0.54	-0.51	-0.49	-0.82	-0.14	0.0	10.3	92.4	56.4
	물가연동(TIP)	14.25	0.04	1.17	1.92	2.94	218.7	186.1	-628.2	211.5
	회사채(LQD)	30.32	-0.45	0.78	0.44	1.84	-766.5	-759.4	-1,833.1	1,042.0
	투자등급(VCIT)	50.16	-0.31	0.95	0.92	1.86	324.8	1,025.0	1,138.0	1,079.6
	하이일드(JNK)	8.13	-1.16	-1.22	0.01	0.46	-401.4	-149.9	-8.7	277.9
	신흥국(EMB)	14.17	-0.12	0.33	1.17	2.71	-363.0	119.6	-674.0	85.7
	월배당(BND)	126.84	0.07	1.45	1.59	2.33	453.4	2,142.6	5,143.6	4,220.3
	미국채 30 년 3X(TMF)	5.16	0.43	6.50	0.30	10.33	-6.9	-403.6	-266.8	-444.8
	미국채 커버드콜(TLTW)	1.11	0.46	2.45	2.13	4.68	7.2	80.5	79.5	129.0
	장기채 월배당(TLT)	50.38	0.28	2.54	1.63	4.50	54.3	-3,235.8	-2,900.1	-1,520.8
	장기채 제로쿠폰 (EDV)	3.82	0.08	2.92	0.90	4.71	14.0	-22.2	175.5	70.8
원자재	원자재 통합(COMT)	0.68	0.91	-3.07	1.63	1.03	0.0	-43.0	-6.6	-11.6
	귀금속(GLDR)	86.58	2.56	1.78	12.62	13.63	-0.6	3,261.6	3,300.1	2,572.4
	산업 금속(PICK)	0.75	-1.43	-2.34	-1.86	4.77	0.0	0.0	-59.8	-59.8
	원유(USO)	0.90	0.69	-6.24	-3.49	-5.20	6.9	-176.9	-305.7	-151.7
	농작물(DBA)	0.84	1.26	-5.57	0.27	0.11	-15.9	-34.9	64.1	52.2
외환	USD(UUP)	0.32	-0.21	-2.67	-1.86	-3.40	-11.3	-62.7	-54.8	-92.3
기타	주식 혼합(AOR)	2.21	-1.69	-3.58	-2.35	-0.40	-2.9	6.0	-69.4	-232.0
	채권 혼합(AOM)	1.43	-1.04	-2.09	-1.26	0.30	-4.4	-4.4	-48.1	-105.1
	변동성(UVXY)	0.20	6.39	50.81	42.19	30.94	-73.1	-375.0	-408.7	-212.8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7. 디지털 자산

트럼프와 미 증시가 불러온 재료와 가격의 불일치

비트코인, 미 증시 하락으로 76,000달러까지 후퇴 후 재반등

기관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시장에 재차 유의미한 변동성을 야기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조정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76,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이후 84,000달러 수준까지 반등했으나,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에 신중한 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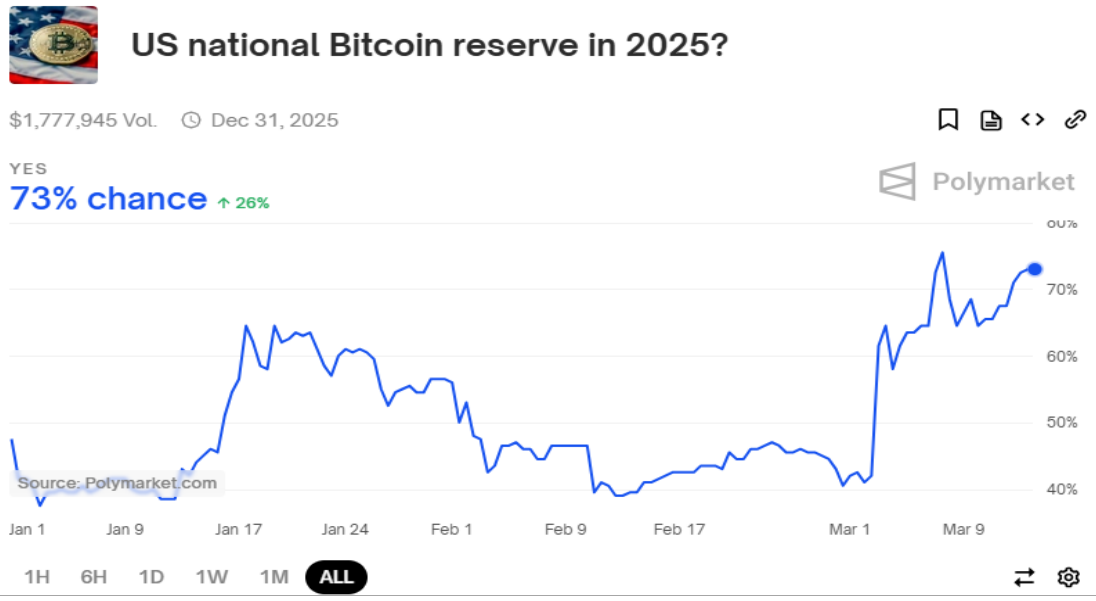
텍사스 주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재정 및 민주당 플랜본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공론화

가격 지표상 부진한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각국 정부와 기관들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긍정적 펀더멘털 요인을 강화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자산 보유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700조 한도내 매수 가능), 추가적으로 22개 이상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여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엘살바도르는 최근 가격 조정기를 전략적 매수 기회로 포착하여 보유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제도권화의 명과 암: 하단을 지지하던 ETF 자금이 주요 순유출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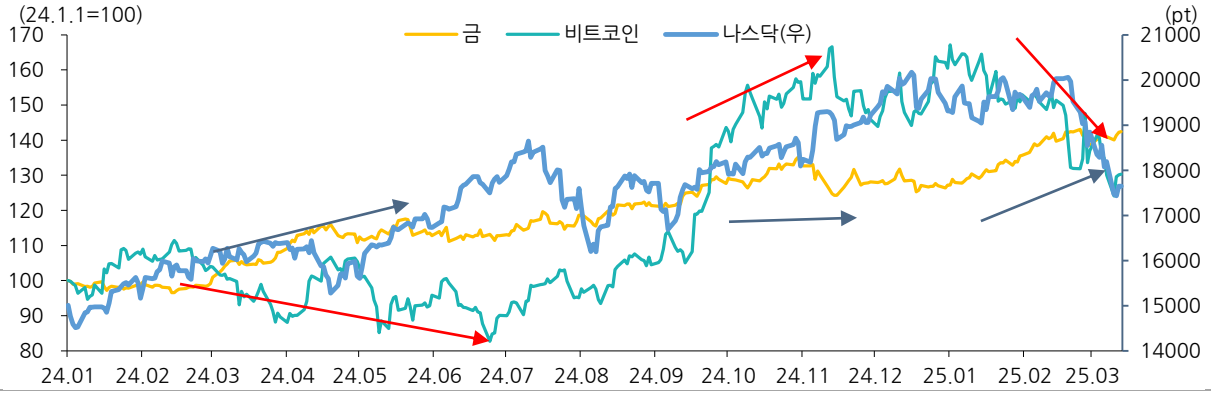
기관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ETF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 가격의 연간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일한 ETF가 오히려 자금을 시장 밖으로 유출시키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져온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그간 제도권 편입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현재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측면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 과정에서 금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안전자산 수요를 흡수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사이클을 진전시켜 유동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거시적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Polymarket 비트코인 전략자산고 2025년내 완료 가능성 급등



자료: Polymarket,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24년 이후 금 & 비트코인 가격 추이 및 나스닥 지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이어왔으며, 안전자산 선호 국면에는 금 아웃퍼폼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이우이직(以迂爲直) 이환위리(以患爲利)
먼 길을 곧은 길로 삼고, 우환을 이익으로 여겨라

비트코인 전략자산고는 기정사실 호재에 둔감해진 시장은 최근 뉴스흐름을 과소평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주 비트코인 전략자산 행정명령 서명한 이후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지정 확률은 Polymarket에서 73%까지 상승했고, 백악관, 행정부, 의회, 규제기관 등 주요 정책 결정 주체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Tax Neutrality(세금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미 납세자들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에 일시적으로 실망감을 보였으나, 세금 활용에 민감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제도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금 관련 법안은 행정부와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이 제한되고, 상원은 승인 권한만 보유하며, 최종 법제화는 하원에서만 처리 가능한 미국의 입법 구조를 감안할 때, 세금 중립적 접근은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비트코인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 채굴력은 오히려 소폭 증가. 생산단가 절대 바닥에 가까워진 비트코인

더불어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로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비트코인의 구조적 특성상 채굴 비용 이하로 가격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우며, 정기적인 반감기 메커니즘으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는 중장기적 상승 여력을 뒷받침한다.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세 종료 및 약세장 진입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투자 기회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관찰되던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가격 조정으로 대부분 해소된 현 시점은, 현금을 보유하며 시장 진입 타이밍을 모색하던 신규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할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약세 흐름 장기화 가능성 상존하나 단계적 매수 관점 유효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및 물가 지표는 과거 경기 침체기에 관찰되던 패턴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하락세 및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 시점에서의 점을 노린 '올인' 전략 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인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다소 지루하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길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단가 상승으로 우상향은 필연적이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황준호, 최예찬, 김경태)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